

- Domus
- The Architectural Review
- Architecture
- Architectural Record
- a+u
- 建築文化
- 新建築

## Domus

1999년 2월호

이번 호는 원과 사각형의 순수 기하학을 취하여 두 개의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풀어낸 Dominique Perrault의 베를린 사이클 경기장을 다루었으며, Hans Hollein의 작품에서 보이는 지하공간에 대한 그의 사고를 읽을 수 있는 글이 실렸다. 또한 디자인의 근원을 자연물이나, 사회현상 등에서 모티브를 얻어내는 디자이너의 사고과정을 통해 밝혀보는 글과 함께 각 디자이너의 작품 등을 소개하였다.



### ■ 근작소개

▶ Dominique Perrault의 베를린 사이클 경기장



벨로드롬과 수영장은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는 450ha의 직사각형 대지 아래에 내려앉아 있어서, 오직 원과 사각형 지붕만이 스틸망으로 덮여져 있는 채로 외기에 면하고 있다. 수백개의 스틸망 매트로 이루어진 지붕은 날씨에 따라 다르게 보이며, 광학적인 효과를 연출한다. 특히 근처 Tegel 공항에서 착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 건물은 마치 거대한 순수 기하학으로 이루어진 그림처럼 보인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대부분을 숨기는 그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운동경기장은 홀로 서서 그 도시의 상징물이 되

는데, 반해 Perrault는 사과나무 정원을 도시에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도시적 상징물로써의 시설에 접근하였다.

### ▶ Hans Hollein의 지하 프로젝트

1989년의 오스트리아 도시의 지배적 경관을 이루는 Munberg 바위산 지하에 위치한 Salzburg 미술관 당선안의 스케치는 Hollein의 지하공간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지하공간은 극탈함기 지나 구멍보트처럼 외부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있는 환경으로, 이러한 내향적 환경일수록 건축가의 기본적 의무는 더욱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지하공간은 모든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조직될 수 있으며, 외부에 대해서는 지면에 대한 면만을 고려하면 된다.

그 밖에 ▶ Mecanoo의 네델란드, 델프트 대학도서관 ▶ Propeller z의 독일, 에센, 'Metropolit' 전시관 등이 소개되었다.

### ■ 디자인의 근원

디자인된 사물에서 그것이 디자인되는 과정을 그려보기란 쉽지 않다. 사용자나 디자이너까지도 결과물 자체만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쉬우며 그 디자인의 근원이나 진화과정을 분석을 거치지 않는다. 이 리포트는 디자인이 나오기까지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라는 자양분 안에서 형태의 근원과 실마리를 밝히려고 시도한다. 그것은 디자이너의 내적, 개인적 취향에 근거하기도 하며 그 개인적 진화과정에서 역사적 사례의 참조를 통해 이뤄지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엄밀한 전문적 디자인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 The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3월호

이번호는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네델란드 건축 특집으로, OMA, Mvrdv 등의 랜드스케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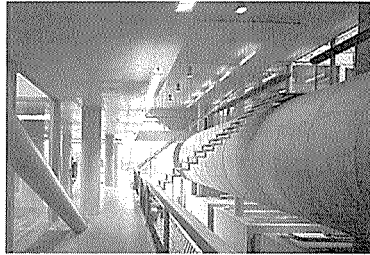
를 주된 디자인 테마로 삼고 있는 작품을 소개하였다. 인테리어 디자인으로는 창고 건물을 아파트로 개조한 안을 다루었으며, Van berkle & bos의 다리구조를 계획한 등을 소개하였다.

### ■ 네델란드 건축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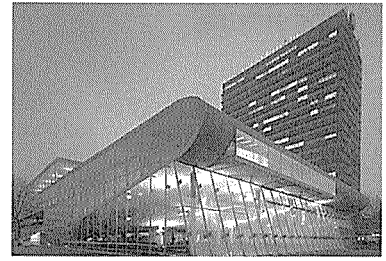
네델란드와 모더니티는 많은 의미에서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인공 대지, 그리드 패턴의 수로와 전적으로 공학과 계획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네델란드는 최근 20년간 건축적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어느 나라보다도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과 건축협회 기금, 그리고 건축관련 출판물의 양산, 베를라헤 인스티튜트 등의 전문 교육기관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Herman Hertzberger를 포함하여, Aldo van Eyke의 후기작품에 영향을 받은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건축가들과 로테르담을 중심으로 Rem Koolhaas의 OMA를 거처간 건축가들은 다양한 건축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실용주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Paper Architecture를 거부하고, 값싸고 재활용되는 재료 사용에 주저하지 않는다. 네델란드는 대부분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럽건축가들에 비해 Context의 제약으로부터 더 자유롭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마치 부족한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인지, 이들은 랜드스케이프를 주된 디자인 테마로 채택하고 있다. 일례

로 ▶Mecanoo의 Delft대학 도서관의 지붕은 잔디밭으로 조성되어 인접한 60년대에 지어진 오토리움의 정원으로 쓰이게 되며, ▶Neutlings Riedijk의 Minnaert Building은 땅이 융기된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

▶Mvrdv의 Villa VPRO는 OMA의 Educatorium과 마찬가지로 판으로 구성되어, 판의 단면이 유리면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Jussieu 도서관 계획안의 연장선상에 있다(Mass와 van Rijs는 당시 OMA에서 함께 일했다). Villa VPRO의 나선형의 내부공간은 여러 레벨에서 만나고 있으며, 연속되면서 접히는 슬랩은 때로는 바닥이 되었다가 벽이 되기도 한다. 공간적 시퀀스는 건축적 산책로로 구성되었으며, 두 개의 나선형평면이 꼬여 점차적으로 지붕층까지 올라가는 구성을 하고 있다.



▶OMA의 Educatorium은 대학이라는 복합체로서, 캠퍼스 랜드스케이프의 연장선으로 기능한다. 유리벽은 다이내믹한 램프와 계단 등을 노출하며, 끊임없이 무리지어 다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휘어진 판과 중첩되어 표현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공학에 의한 공간적 다양함의 획득을 보여준다. 일례로 접어들어진 판 아래에 위치하며 경사진 유리면으로 둘러 싸여있는 식당은 독특한 공간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비평가들은 치밀한 건축적 산책로의 조직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시각적 효과에 치중하고, 우연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벤치나 가로대 등 인간적 요구의 수용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공업적인 재료의 선택으로 따뜻한 느낌과 가축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Koolhaas는 혁신적인 형태와 시각 경험으로 학생들의 생활에 비일상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Herman Hertzberger의 Uden 극장 ▶Neutlings Riedijk의 Ede 신문사와 인쇄소 ▶Erick van Egeraat의 Leiden 실험실 ▶Weil Aret의 Breda 가구공장 본사 ▶Kraaijvanger-Urbis의 헤이그 영국인 학교 등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 ■ 인테리어 디자인- Fokkema Architecten의 벨기에 Antwerf 아파트먼트

19세기 창고건물을 개조하여 다섯 식구를 위한 현대적인 아파트먼트를 만들었다.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창고 건물의 비결정적인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빛 도입장치, 브릿지, 계단, 메자닌층, 그리고 자기충족적인 캡슐 - 각각 침실과 화장실 - 등이 만들어졌다. 이 세 개의 캡슐은 흰색 플라스터 큐브의 형태를 이루며, 수직 수평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서, 보이드 공간을 만들어 낸다.

### ■ 디자인 리뷰- Van berkle & bos의 다리구조물 계획안

절제된 디자인의 다리 콘크리트 센터는 네델란드 북부의 Purmerend에 있는 강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다리는 비동시적으로 개폐되는 세 개의 평행한 도로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리를 지키는 스테이션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세밀한 구멍의 스틸 메쉬에 의해 덮여서, 특히 밤에는 빛이 확산되어 영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이 소규모 프로젝트는 소홀히 다루지기 쉬운 도시 하부구조물을 구축적 서정미를 구체화시키면서 주변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였다.

## Architecture

1999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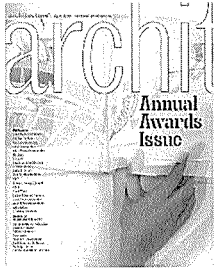
이번호는 P/A Awards 와 Awards for Architectural Research 당선작들을 소개하였다. 각각 디자인과

연구부분에 수여되는 상으로 작품과 함께 심사위원의 코멘트가 수록되었다. 또한 60년대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아키텍트의 주장과 현대에 있어서 그 영향을 살펴보는 칼럼이 실렸으며, 비계구조물의 디자인과 기술적 정보를 최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 ■ P/A Awards 와 Awards for Architectural Research 당선작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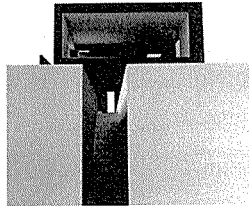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넘어가는 올해의 P/A Awards는 모더니즘이 고난을 이겨내고 더 강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Modern은 더 이상 과거의 독단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의 인용에서 보이듯, 현대 건축계의 흐름을 읽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수상작으로서, • Shim-Sutcliffe Architects의 미네아 폴리스 보트하우스, • Gabellini Associates의 베로나, Piazza Isolo, • Wendell Burnette Architects의 피닉스 Tocker/McCormack House, • Willis, Bricker & Cannady의 휴스턴 Jones Plaza 리노베이션, • Office dA의 Wayland 단지 계획 등 이상 5개 작품을 소개하였으며 가장 부분으로 선정된 12개의 작품을 간략히 다루었다.

Awards for Architectural Research는 1. 에너지와 생태건축부분, 2. 역사분야, 3. 행동, 사회과학분야, 4. 기술, 컴퓨터, 재료관련 연구부분 등 네 개의 부분에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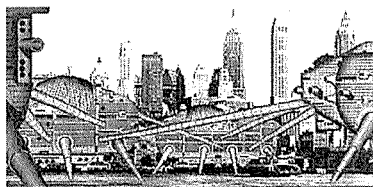


쳐 수여되는데, 올해는 • Lawrence Berkley 국립연구소의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위한 통합 외피 시스템 연구, • Siegle & Strain Architects의 Emeryville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연구, •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과 홍콩 Chinese 대학 공동 프로젝트로서, 건축공간에서의 대체 광원연구등이 수상하였다. SOM의 뉴욕, 메디슨 애버뉴, 오피스 타워와 Sharples Holden Pasquarelli의 Sex Museum

### ■ 아키텍트 - 그들이 전망했던 미래를 되돌아봄



아키텍트는 1961년과 1974년 사이에 활동했던 그룹으로 기술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며 움직일 수 있는 건물, 신체와 같이 유기적으로 조직된 도시 등을 글과 그들의 현란한 드로잉을 통해 소개하였다. 아키텍트의 유산은 공항이나 유럽의 오피스 건물, 쇼핑몰, 정부 청사에서 쉽게 찾아질 수 있으며, 영국의 하이테크 건축은 세계적인 양식이 되고 있다. 우리가 워크맨, 핸드폰, 컴퓨터 등을 지니고 앉아 있는 넓고 유동적 공간은 아키텍트가 꿈꾸었던 Plugged-in Utopia일 지 모른다.



### ■ 기술정보 - 비계 구조물

워싱턴시의 상징탑인 오벨리스크가 보수 공사를 위해, 탑 주위로 비계가 세워졌다. 미적으로 고려된 이 구조물은 또 다른 기념탑으로의 변신을 가능케 하였다.

넓은 푸른색의 스틸망이 석조의 패턴을 이루며 전체 탑을 감싸고 있으며, 이 구조물위에서 18달 동안, 거대한 석재의 오염을 닦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비계 시스템은 알루미늄 튜브가 전체 골조를 이루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틸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비싸지만 더 유연하여 비정형 건물에 적합하고, 스틸보다 더 많은 하중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뉴욕 소재의 비계구조물 전문회사인 Universal Builder Supply는 오벨리스크 비계구조 외에도 워싱턴 도서관 돔 보수 작업을 위한 비계구조물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돔 지붕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달아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Erro Saarinen의 Dulles 공항 재보수 공사에서는 내부에 바퀴 달린 작업 플랫폼을 공중에 설치하여 작업중 승객들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 ■ 기타

파나마, Soberania 국립공원의 조류 관찰대가 소개되었으며, 도시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Mack Architects와 Roland Hagemuller Architects의 비엔나 하우징 프로젝트, ArchitectureDenver의 덴버 16번가 육교 계획안 등이 다루어졌다.

##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3월호

이번호는 근작 Heikkinen Komonen의 맥도널드 핀란드 본사 등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건물 유형 연구



부분으로 법원을 다루었는데 현대적인 법원건물 디자인 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화, 보안성,

접근성을 들었으며 이러한 요건들을 잘 충족시키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 ■ 근작소개

▶Heikkinen Komonen의 맥도널드 핀란드 본사



절제된 형태와 투명한 유리면에 의해 주변 경관이 투과되는 원통형의 이 건물은 주변환경에 대비되어 수정체와 같은 독특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또한 건축가는 도시구조물을 종착지점을 요구하는 미완성된 벽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원통형태는 360° 주위로 건물이 초점이 되는 동시에 종착지점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이 건물은 핀란드에서 맥도널드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 뿐 아니라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의 제공에 역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투명한 파사드는 실내에 충분한 채광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방된 평면과 유리 칸막이의 사용으로 모든 작업자에게 자연광원이 닿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핀란드 건축법을 충족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작업장을 만들어 내었다.

▶Jonathan Segal, Public Architects, Ted Smith & Lloyd Russell 등 6개 건축설계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샌디에고 리틀 이태리 구역 주거단지 개발

▶John McAslan의 이스탄불 Yapi Kredi 사옥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 건물 유형연구 - 법원

컴퓨터기술, 보안성, 접근성이 새로운 법원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인자가 되고 있다. 특히 보안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다. 그러나 보안성을 위해 주도로로부터 길게 물러나면서 시민들을 위한 광장이나 플라자

를 형성함으로써 오히려 제약을 장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법원디자인에 있어서 컴퓨터기술의 도입은 전자 매체를 통한 증언, 비디오를 통한 증거제시, 재판 녹화, 증대되어가는 판사나 변호사들의 컴퓨터에 의한 법률조회 등의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Perkins Eastman Architects의 퀸즈 법원청사



법원이용자들의 대부분이 갖 이민은 거주자들이므로 이 건물의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명확한 방향성과 평면구성이 고려되었으며 위협적인 건물이 아니라 친밀감을 주는 분위기의 조성이 강조되었다.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평면은 아트리움의 로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B)각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는 건물의 입구가 되고 있다. 배심원실의 전면은 유리벽으로 처리하여, 광장부분을 내다볼 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 밖,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갖도록 디자인되었다.

그 밖에 ▶Pei Cobb Freed & Partners의 보스턴 법원청사 ▶Gruen Associates의 캘리포니아 Santa Ana 연방법원 ▶Shepely Bulfinch Richardson의 뉴햄프셔 법원청사 ▶DLR Group의 위스콘신, La Crosse County 법원청사 등이 사례별로 소개 되었다.

#### ■ 기타

▶뉴욕주 Gold Medal 수영장의 지붕 트러스 구조와 설비시스템 ▶재질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전통적인 두꺼운 석재판을 사용하는 사례와 기술적 정보를 다루었다.

## a+u

1999년 4월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런던의 새로운 건축가들'이란 제목으로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런던의 건축



흐름들에서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과 경향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하였다. 윌리엄 맨(William Marn)의 소개와 함께 토니 프레튼, 홀튼 테일러, 카루소 세인트 존 등 9명의 작가·스튜디오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연재물로는 '시대의 시점(視點) - 제3회: 도시주거의 가능성 - 매스 하우스를 넘어서'가 게재되었다.

#### ■ 특집: 런던의 새로운 건축가들

▶단순한 기하학형태의 미학

최근의 런던에서의 변화는 놀라운 수준이다. 도시 내 곳곳에서 건설중인 건물이 보이고 점포나 호텔, 레스토랑이 차례차례 오픈하고 있다. 또한 런던을 무대모한 대규모의 프로젝트나 콤플렉스가 소개되어, 지금 런던은 활기에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테임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콤플렉스, 리처드 로저스가 제안하는 「어번 르네상스」계획, 노먼 포스터가 진행하는 밀레니엄 타워 프로젝트, 헤르쾅그와 드 무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타이트 갤러리의 리노베이션 등 앞으로의 런던의 위상을 좌우할 중요한 공공건축의 프로젝트가 넘쳐나,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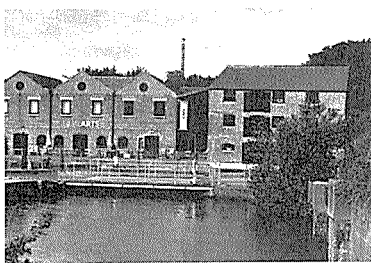
이러한 화려한 상황속에서 런던의 젊은 건축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취재해 보면 주류를 이루는 건축가들과는 사뭇 다른 인상을 받게 된다. 그들의 건축이념을 표현하는 적합한 단어를 찾다 보면 '청빈'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청빈’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것은 간소한 미학이다. 이 청빈의 사상을 실행하는 것만큼이나 곤란한 일도 없을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다. 런던 시내의 오래된 주택을 보면 그것은 바로 청빈이라는 단어에 잘 어울리고 있다. 외벽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흔한 벽돌이며, 특별히 고가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부 공간도 심플하여 장식적인 면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빈곤한 건축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단순한 기하학 형태가 만들어내는 풍부함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며 소재는 소재 스스로가 갖는 맛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용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는 젊은 런던의 건축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들 전통적인 주택 건축을 상기시킨다. 그들의 건축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윌리엄 맨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검소한 외관, 재료에의 깊은 관심, 자연광을 풍부히 끌어내는 심플한 내부공간 등 그 어느 것도 단순하지만 풍부하고, 추상적이면서도 상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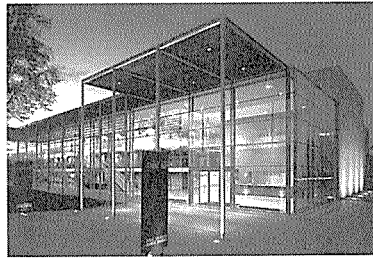
그들의 건축이 앞으로의 런던의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현재의 영국의 상황과 중첩해서 보면 흥미롭다. 윌리엄 맨인 자신의 에세이에서 “Shifting Sands”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영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젊은 런던의 건축가들이 이를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품



토니 프레튼(Tony Fretton)의 Quay Arts Center, Laban Dance Center, 첼시의 미술품 수집가를 위한 집, 홀턴 테일러(Houlton Taylor)의 Riverside School, Children’s Home, Derwent 의료 센터, 카루소 세인트 존(Carusos St John)의 Walsall Art Gallery, 부룩스 스테이시 랜덜

(Brooks Stacy Randall)의 The Boating Pavilion, Philip Gumuchdjian의 Think Tank/Boathouse, Studio E Architects의 Haileybury Pool, Glenn Howells의 Hereford Art Center의 코트야드, Julian Wickham의 Bank Restaurant, Tim Ronald의 ‘The Landmak’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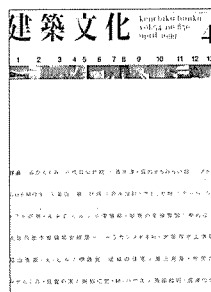


Glenn Howells의 Hereford Art Center의 코트야드

建築文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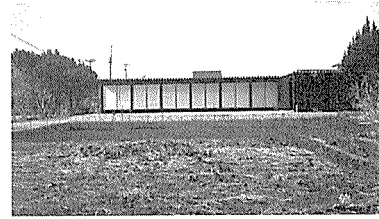
1999년 4월

이번호는 최근 일본에서 준공되어진 주요 작품들의 소개로 구성되었다. 소개된 작가와 그 작품들은 미칸구미의 야츠시로 공민관(公民館)과 사쿠라 주택, 아오키 준의 ‘눈의 마을 미래관’, 아틀리에 COSMOS의 하카이잔(八海山) “이즈미” 프로젝트, 호리바 히로시와 쿠도 카즈미, 실라칸스 K&H가 공동작업한 오오사카시 수상(水上) 소방서 등 13개 작품이다. 연재물로는 ‘알바 알토-행복한 건축가’ 제7회분이 게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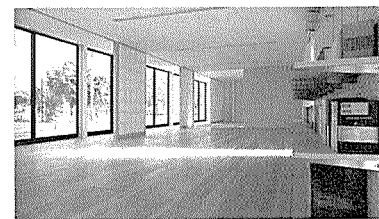
■작품

▶야츠시로 공민관(公民館): 미칸구미 야츠시로 공민관의 대지는 아직 택지보다는 농지(주로 밭이다)가 더 많은 態本현 야츠시로시의 신흥 주택지에 자리잡고 있



야츠시로 공민관(公民館)

다. 건물의 크기는 40평이 조금 못되는, 거창하게 공민관이라기 보다는 마을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값싼 절판(絶版)을 외벽과 지붕에 사용하고 인근의 목재를 일부 사용하였으며, 천장고는 알루미늄 세시의 규격에 맞추는 등 저예산 건축의 기본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이는 마을 사람들이 매월 900엔씩 모아 마련된 소중한 기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건물의 형태는 커다란 세칸의 방을 연결하고 거기에 현관부분의 덩어리를 덧붙인 단순한 모양이나, 이것은 예산의 절감과 함께 일정한 프로그램을 규정하지 않으려는 건축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마을사람들이 공공건물에 필요한 기능들을 마땅히 생각해내지 못하여 건축가가 프로그램까지 제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모두 모여서 먹고 마시는 일이 주된 기능이 되지 안겠는가’라는 마을 회의의 담당자 말처럼 마을사람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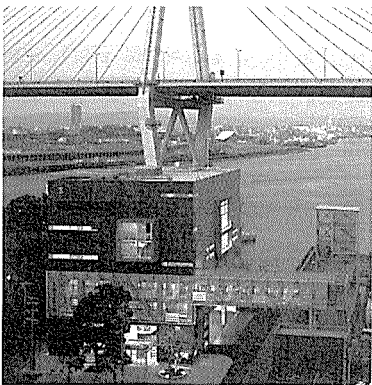


야츠시로 공민관(公民館)

▶오오사카시 수상(水上) 소방서: 호리바 히로시와 쿠도 카즈미, 실라칸스 K&H 공동작업

이 소방서의 설계에서 건축가는 ‘소방서원의 활동을 보조해 주는 건축’이라는 어찌면 지극히 당연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테마로 삼고 있다. 소방서원은 24시간 2교대로 근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낮에만 근무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로 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들의 대기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따라서 소방서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4배에 해당하는 대기실 면적을 계획하였으며, 이들은 채광과 환기를 고려하여 건물의 주변부를 따라 배치하였고 긴급 출동시의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소방서의 마당위에 걸친 브릿지도 계획 되었다. 또한 24시간 직원이 상근하는 사무소의 창들은 거대한 적색의 프레임으로 묶여져 야간에는 거대한 촛대처럼 시내를 밝히면서 24시간 근무하는 소방서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게 된다. 동시에 구조대 차량의 출동 모습을 가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소방서의 모습으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오오사카 수상 소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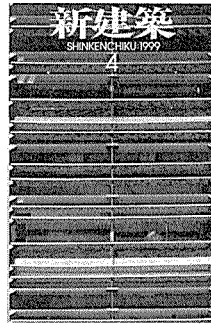
▶Amuser Kashiwa

이 건물은 공민관과 근린 센터, 콘서트 홀의 세 가지 기능이 복합화된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다. 세 개의 기능을 세 개의 부서가 각자 관리하는 체제였으므로 무엇보다 시민들이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기대하기 힘든 점이 많았다. 건축가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 상에서 활기있는 각 기능들간의 연결을 시도하였으며, 공연이 없는 대부분의 시간 비어있는 홀의 포이어 부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전면을 유리로 처리하여 개방감을 주도록 하고 있다.

新建築

1999년 4월

이번 호에서 소개된 최근 작품 들로는 유시하라 구름위의 수영장(건축가: 호소키), 눈의 마을 미래관(아오키



준), 키미츠 보건복지 센터(사카쿠라 건축사무소), Speak for Building(테루이 신조 건축연구소), 미야가와 초등학교(요시카와 건축설계사무소) 등이 소개되었으며, 연재물로는 “소재로 보는 90년대의 공간과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연재가 시작되었으며, 이번 호에서는 그 첫회로 목소재(木素材)편이 게재되었으며 “구조의 계보”는 20번째 순서(하이테크 건축)를 맞았다.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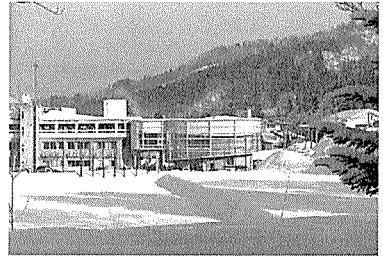
▶유시하라 구름위의 수영장: 호소키 설계



구름위의 수영장

대지는 해발 430m정도의 고원지대이다. 부근에는 기존에 건립된 호텔 및 온천시설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구름위의’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 수영장은 호텔의 부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 위의 산장과 같은 분위기를 위해 전체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으나 지붕을 목조로 하고, 목재 패널을 붙임으로써 목조건물과 같은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눈의 마을 미래관: 아오키 준설계



눈의 마을 미래관

대지가 위치한 安 町은 호설(豪雪)지역으로 눈이 많은 곳이다. 이곳에는 ‘유키다루마(눈사람) 재단’이라는 조직이 있어 눈이 많은 설국(雪國)에서 가능한 생활 스타일을 연구하고 확대시키어나가는 일을 맡고 있다. 이 건물은 이 단체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점을 상징하기 위해 눈을 이용한 시설을 구상하던 중 겨울철의 눈을 건물내에 보존하였다가 여름철 냉방에 이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건물의 중앙부에는 거대한 눈창고가 마련되어 있다.

▶미야가와 초등학교: 요시카와 건축설계사무소

이 초등학교는 기존의 교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교사를 짓는 1년동안 수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통의 경우 운동장에 프리페브린 가설 교사를 두는 방법을 사용하나 성장기의 어린이에게 1년을 가설교사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가설 건물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기존의 교사를 부분적으로 해체하면서 신축 교사를 완성해나가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졸업생들이 모교를 찾았을 때 구 교사에 대한 기억을 보존시키기 위해 거룸루의 일부를 남길 수는 없었으나 다음의 두 가지를 남겨 놓게 되었다. 그중 하나는 신축 교사의 중정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인데 다른 나무들은 기존의 나무들을 공사중 다른 곳에 옮겨 심었다가 다시 심는 방식으로 옮겨졌으나 이 나무는 기존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남겨진 또 다른 하나는 문의 이름들이다.